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1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EBS1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time slot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일(음 7월 20일 辛巳)

48년생 정성적으로만 임한다면 쉽게 효과를 보겠다. 60년생 제반 여건이 충족돼 가는 국면이다. 72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기다. 84년생 외형에 신경 썼을 때 재값을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87

42년생 획기적인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54년생 객관적이지 않다면 실용성이 없다. 66년생 달콤한 결실을 얻는 기쁨이 있다. 78년생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9, 15

애니메이션 영화 올 여름 흥했다

상영횟수 증가 가족단위 관람 늘어 '인사이드 아웃' 490만명 흥행 1위

올해 여름(7~8월) 애니메이션 영화 관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14편의 애니메이션이 영화관에서 개봉해 864만6431명의 관객을 모았다. 지난 4년간 7~8월 애니메이션 관객(편수)은 2011년 535만명(16편), 2012년 596만명(10편), 2013년 475만명(28편), 2014년 410만명(26편) 등이다. 관객 수가 2년 연속 감소했던 여름 애니메이션 시장이 올해 반등하며 작년의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영화관입장권이 통합전산망을 통한 자료로 공식 집계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다. 영화시장분석가 김형호 씨는 "매년 국내에서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여름이 애니메이션 역대 최대 관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올해 7~8월 개봉한 14편의 애니메이션들은 지난 23일까지 3691개 스크린에서 14만6479회 상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편이 개봉해 2644개의 스크린에서 7만 5864회 상영된 것과 비교했을 때 스크린 수보다는 상영횟수가 많이 늘어났다. 2013년에도 같은 기간 28편이 개봉해 3302개 스크린에서 8만5천15회 상영된 것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인사이드 아웃'

김형호 씨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애니메이션의 흥행은 상영횟수가 스크린 수보다 더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애니메이션의 주 관객층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 관객이라고 전제하면 일반 성인 관객보다 가족 관객이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상영횟수가 많다는 것은 가족 관객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보장된다는 의미다. 상영횟수는 시간상의 접근성이고, 스크린 수는 거리상의 접근성이기 때문이다.

올여름 개봉한 애니메이션의 흥행 순위 톱5는 '인사이드 아웃'(490만명), '미니언즈'(250만명), '극장판 요괴워치 : 탄생의 비밀이다냥'(55만명), '명탐정 코난 : 화염의 해바라기'(46만명), '손데쉬'(8만명) 순이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두 편이 시장을 이끌고,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허리를 받쳐준 모양새다.

'인사이드 아웃', '미니언즈' 등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두 편은 '암살', '베터',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 등의 블록버스터가 선두권인 시장에서 성인 관객층까지 끌어들이며 역대 애니메이션 관객 최대 시장을 견인했다.

여기에 5년 연속 여름 애니메이션 흥행 톱5를 이어가는 극장판 '명탐정 코난'을 비롯해 올해는 '극장판 요괴워치 : 탄생의 비밀이다냥'도 가세해 힘을 실어줬다.

특히, 최근 유년시절의 향수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키덜트'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애니메이션 열풍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인 키드(kid)와 성인인 어덜트(adult)의 합성어인 '키덜트'의 시장 규모는 현재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열린 서울키덜트페어는 작년(4만5223명)보다 11%가량 증가한 5만474명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미니언즈'

"한국서 제작하는 마지막 영화"

10일 개봉작 '사랑이 이긴다' 민병훈 감독

오는 10일 개봉을 앞둔 한국영화 '사랑이 이긴다'를 연출한 민병훈 감독<사진>이 한국에서 영화 제작 중단을 선언했다. 민 감독은 지난달 28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진행된 '사랑이 이긴다' 특별시사 후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 작품이 한국에서 만들어 개봉하는 마지막 영화"라고 밝혔다.

이어 "왜 재미있는 영화만이 있어야 하고, 왜 영화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국은 앞으로 흥행성 좋은 영화 몇 편만 있으면 1년 극장이 다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 감독은 "꼭 한국에서 만들어 한국에서 개봉해야 한국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랑이 이긴다'는 청소년의 자살과 무너져가는 한국의 가족 구조를 심도 있게 다룬 장편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기 파 배우 장현성과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최정원, 오우진이 출연한 이 영화는 무너져가는 가족 속에서 방황하는 아버지, 딸을 돌아세우는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딸의 모습을 담았다.

특히, 한국가톨릭문화원이 나서 제작비를 전액 투자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가톨릭문화원은 문화예술의 힘을 빌려 종교의 의미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영화를 만들어 극장에 개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독일 함부르크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국내외 호평을 받았으며 다양한 영화를 지원하는 일부 극장에서 소규모로 개봉할 예정이다.



임재범, 데뷔 30년 단독 콘서트

내달 말부터 전국 투어 ... 3년만에 새 앨범

가수 임재범(사진)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새 앨범을 발표하고, 단독 콘서트를 연다.

1일 소속사 쇼플레이에 따르면 임재범은 오는 10월 30~31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울 공연 이후 대구·부산·인천 등 10개 도시 투어도 계획 중이다.

임재범은 2012년 앨범 '투'(To) 이후 3년 만에 새 앨범도 발표한다. 그는 이번 앨범이 데뷔 3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만큼 발매 시기와 발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쇼플레이는 "이번 콘서트는 임재범이 30년 동안 걸어온 음악적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재작년 전국투어 이후 2년간 30주년 앨범과 콘서트만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임재범은 지난 1986년 '시나위' 1집에 보컬로 데뷔해 허스키



한 보이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다. 1991년 솔로로 전향해 '이 밤이 지나면', '그대는 어디에',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등을 히트시키기도 했다. 또 2011년 5월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가왕', '노래의 신'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연출뉴스>